

■ 우리 말의 오염(汚染) ■

잘 못 쓰이는 우리 말



이상룡 | 본지 주간·명예문학박사

아름다운 우리말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일본어(왜말)를 빠른 시간내에 다 몰아내기는 어려우나 좋은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루속히 왜말을 버려야 한다. 뜻도 모르면서 무심코 쓰는 일본어, 해방 6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리는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10. ‘한반도’ 는 우리 나라를 낮추는 말

우리는 “한반도”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를 낮추어 보고 업신여기는 말로 썼다. 우리말로로는 ‘곶’이라고 한다. ‘곶’이란, 바다나 호수로 뻗어 육지의 끝 부분, 갑(岬 : 일본식 표현), 지취(地嘴), 또는 지명(地名) 뒤에 붙여 바다로 뻗어 나온 곳을 나타내는데 장산곶, 장기곶, 간절곶(울산), 호미곶 따위로 표현한다.

여기서 잠깐 “호미곶”을 살펴보면 16세기 조선 명종 때 풍수지리 학자인 남사고는 산수비경(山水秘境)에서 한반도는 백두산은 호랑이의 코, 호미곶(虎尾串)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천하의 명당이라 하였고,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영일만 호미곶을 일곱 번이나 답사 측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호랑이

꼬리인 이곳을 토끼꼬리로 업신여기는 말로 낮추어 표현하였으며 이곳 정기를 없애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는 잔학성(殘虐性)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온섬인데 조선을 반섬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일본식 한자말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11. 십팔번(18番)은 애창곡으로

노래방에서나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는 기회가 있을 때면 흔히 십팔번이란 말을 듣게 된다. 도대체 십팔번과 노래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일본에는 가부키(歌舞伎 歌舞妓)라는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전통 연극이 있다.

그래서 1674년경부터 가부키를 가업으로 삼는 많은 집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치카와(市川)라는 집안이 유명했다고 하며 그 이치카와 집안에서도 단주우로오(團十郎)라는 배우 집안이 뛰어났으며 그 가운데서도 7대째(1791~1859)가 가장 뛰어나 가부키 인기 연주 목록 18번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십팔번이란 ‘가부키 십팔번’의 준말인데 다시 말하면 십팔번은 인기 연극을 뜻하는 말인 것인데 우리는 왜 수백 년전 일본의 가부키에서 나온 말을 아무 의미없이 쓰고 있는지. 이제부터

라도 노래방 같은 곳에서 ‘인기 곡목’이라 하던지 ‘애창곡’ 또는 ‘좋아하는 노래’ 아니면 ‘단골 노래’라고 고쳐 부르자.

12. 이조시대는 조선시대로

일제강점기 일인들은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던지 철저히 알보고 조선사람들을 억누르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깔보고 업신여겼으니 조선이라고 하면 한 나라를 인정하게 되니까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씨 조선’이니 이조시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일본 전국시대엔 각 고을마다 무사(武士)들이 자기 고을을 다스렸던 것에 비유하여 이씨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한 고을이라는 뜻으로 이씨조선 이조시대라고 낮추어 알보는 뜻의 말을 썼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표현인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를 알잡아 하는 말을 물려받아 쓰고 있으니 말이다.

13. 장소는 곳으로

‘장소’는 일본말이다. 우리는 본래 ‘곳’이라는 우리말을 썼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한자가 들어오자 처소(處所)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일제 때부터는 ‘처소’라는 말을 밀어내고 장소(場所 : 바쇼)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처럼 주책없이 남의 말만 쫓다보면 우리말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의 정신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14. 노견(路肩)이란 말?

어느 아버지가 대학생인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아들에게 ‘노견’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니 아들이 대답하길, ‘개길’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걸 어른들의 잘

못이지 젊은이들을 탓할 것이 못된다.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이산포 IC)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노견없음’이란 노란 간판이 세 번이나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냥 한글로 ‘노견 주차금지’라고 써 있으니 그 뜻을 누가 아라.

이 간판은 시청에서 달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나 우리말에 이렇게 무식해서야, 이 말은 분명 일본말이다. ‘로카타(路肩), 로카타 주우이(路肩注意), 우리 말로는 ‘길옆’이 노견이다. ‘노견’은 ‘길의 가’라는 뜻이고 한자말로는 노변(路邊)이다. 따라서 ‘노견’은 ‘갓길’이 아니다. 갓길은 ‘가의 길’이란 뜻으로 한자 말로는 변로(邊路)인데 강갓길(江邊路), 바닷가길(海邊路) 할 때의 ‘갓길’이다. 길옆과 비슷한 말로 ‘길턱’이란 말도 있다.

15. 신토불이(身土不二)

자산 287조의 국내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 이 농협중앙회 건물에 “신토불이”란 큰 글씨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으나 갑자기 나타난 “신토불이”란 말이 퍼지면서 특히 농산물 상자에는 빼짐없이 “신토불이”란 단어가 쓰여 있다.

이 말은 분명 일본말이다. 모방문화의 기수이며 짜맞추기 명수인 일본인들의 조어(造語)인 “신토불이(身土不二)”, 이 말은 불교 용어에서 따온 말로 불신국토(佛身國土)에서 신토(身土)를, 큰 사찰에서 볼 수 있는데 세 문 중 해탈의 경지에 든다는 마지막 문인 불이문(不二門)이란 글자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불이”를 따서 맞춘 조어이다. “우리 몸엔 우리 농산물”, 이 얼마나 쉽고도 고운 우리 말을 두고서. (2003.11.28 중앙일보 참조)

16. 난개발(亂開發)

어느날 신문에 보면 난개발 비리(非理)로 두 달 새 79명 구속(2000.8.7 ○○일보)이라고 쓰고 있다. 난개발도 일본말이다.

우리 말로는 남개발(濫開發)이다. 중국에서도 남개발로 쓴다. 어지러운 난(亂)자니 어지러운 개발이라고 알지만 실은 함부로 하는 개발이란 뜻이다. 넘칠 남(濫), 남개발 어느 쪽이 더 말의 뜻이 풍기는 의미 즉 뉘앙스(nuance)가 더 한가?

17. 선배(先輩)와 후배(後輩)?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면 선배와 후배 즉 학교 동기생과 동창생을 많이 찾게 된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서로 끌어 주고 밀어 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풍토, 물론 잘못 저질러지는 폐단도 있으나 상부상조하는 좋은 점도 있다.

그런데 이 말도 일본어다. 우리 말로는 선학(先學)과 후학(後學)으로 써야 한다. 후학이란 말은 지금도 쓰고 있으나 선학이란 말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말을 찾아 쓰자.

한자어(漢字語) 바로 읽기

- 슬외 -

□□家率(가솔)

집안식구
× 가솔 × 가수

□□家諱(가휘)

부조(父祖)의 이름에 대한 기휘(忌諱)
× 가위

□□角逐(각축)

승리를 위하여 다투어 쫓아감
× 각추

□□奸邪(간사)

성품과 바탕이 간교하고 올바르지 못함
× 간나

□□改悛(개전)

잘못된 생각을 고쳐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
× 개준

□□釀出(각출)

여럿이 돈이나 물건을 주렴하여 내는 것
× 據出 × 거출

*“據”는 의지한다는 뜻이고 “釀”은 주렴한다는 뜻

□□車馬(거마)

수레와 말
× 차마

□□更迭(경질)

직분의 자리를 갈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는 것
× 갱질

*“更”은 고친다, 대신한다, 지난다, 바꾼다는 뜻일 때는 “경”이라고 읽음. 경정(更訂), 경장(更張) 따위. 또 다시 한다는 뜻일 때는 “갱”이라고 읽음. 갱생(更生), 갱신(更新)

□□管轄(관할)

① 거느리어 감독함. ② 권한에 의하여 지배(支配)함
× 관활

□□喬木(교목)

줄기가 굵고 굽으며 곧고 높이 자라고 그 위에 가지가 퍼진 나무(소나무, 잣나무 따위)

× 고목